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7월 6일 · 제 364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김범중 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일본 전자상거래 급증으로 인한 창고 용량 부족으로
신규 창고 건설 중
2. 머스크, 신 동북아-뉴질랜드 노선 개설
3. 브렉시트, LNG시장의 물류흐름 변화 야기할 수도
4. 브렉시트, 유럽 공급 체인에 영향 미칠 것

| 물류시장동향 |

1. EC, 여름 이후 기존 GRI 방식 대체하는 총 운임기준
적용 예상
2. 구글, 태평양 횡단 해저 광케이블 완공

| 공지사항 |

1. 제11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개최





물류정책 · 사업동향

일본 전자상거래 급증으로 인한 창고 용량 부족으로 신규 창고 건설 중

- 일본에서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e-commerce)로 인한 창고 부족으로 물류센터 개발자와 물류서비스 제공자가 신규창고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
- DHL 일본 대표이사인 Taketo Yamakawa씨는 해외 시장 특히 이머징 마켓에 대한 사업 확장이 일본 기업에게는 주요 성장 전략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물동량 증가로 동경 물류센터의 처리 용량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언급함
 - 새로운 DHL Express사의 CEO인 Ken Allen씨는 일본 시장은 전자상거래와 자동차 부문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으로의 국제배송수요(international shipping needs)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최근 DHL은 동경 신키바(Shin-Kiba)에 기존 창고보다 두 배로 큰 215,278 평방 피트(square-foot)¹⁾의 신규 창고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7,4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DHL Express사의 Ken Allen씨는 이번에 건설하는 신규 창고는 지금까지 투자 중 최대 규모이며 기존 DHL 네트워크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일본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일본의 선도 물류 센터 개발사인 GLP는 크게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번 주에도 230만 평방피터²⁾ 규모의 새로운 임대차(lease) 계약을 체결함
 - GLP Japan사의 사장인 Yoshiyuki Chosa씨는 일본 내수 소비가 강하고 전자상거래와 식품 산업에서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함
 - 오사카의 GLP Suita사는 160만 평방피트 규모의 임대 계약을 전자상거래 회사인 ASKUL사와 체결했는데, 이는 ASKUL사의 일본 내 최대 물류센터가 될 예정임
 - 의류와 신발에 특화된 전자상거래 회사인 Locondo사는 동경의 GLO Yachiyo사의 366,000 평방 피트 물류창고를 임대했음
 - 식품 도매 회사인 Kato Sangyohas사는 센다이의 GLP Tomiya사의 215,000 평방피트 물류창고를 임대했음
 - 또 다른 전자상거래 회사는 오사카의 GLP Naruohama사에 140,000 평방피트 창고를 임대했음

1) 20,000m², 6,050평, (<http://blog.great-escape.ca/381>, 평, 제곱피터, 스퀘어피트(평방피트)전환)

2) 213,654m², 64,630평



- GLP의 CEO인 Ming Mei씨는 일본은 최신 물류 설비에 대한 수요는 크지만 단지 3%만이 현대화되어 있어 신속한 창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힘
 - 2006년 이래 125% 성장한 아웃소싱 비즈니스와 270% 성장한 전자상거래 배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물류센터 개발이 필요함
 - GLP사의 일본 내 수익은 21% 늘어났으며 2015년과 2016년에 시작한 개발 사업은 10억달러에 이르고 6억 7,200만 달러가 완료되었음
 - GLP사는 현재 회계 기간 내 일본 내 목표 개발 사업 규모는 6억 4천만 달러이며 이는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의 7%에 해당됨
 - 또한 캐나다연금계획투자위원회(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와 GLP Japan사 간의 두 번째 개발 벤처 회사인 GLP JDV II사는 총 자산 규모 8억 7천 3백만 달러로 3년간 2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자료 : www.joc.com, 2016.6.29

이연경 전문연구원
051-797-4682, eklee@kmi.re.kr



머스크, 신 동북아-뉴질랜드 노선 개설

- 네덜란드계 세계 최대 정기선사 머스크가 최근 부산, 상하이, 홍콩 등 동북아 주요항과 뉴질랜드 타우랑가(Tauranga) 항을 잇는 새로운 '트리플 스타'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개설했음
 - 동북아-뉴질랜드 노선은 일본 요코하마, 한국 부산, 중국의 상하이 닝보, 대만의 가오슝 및 중국의 홍콩과 차이완, 뉴질랜드의 타우랑가와 오클랜드 등 동북아 7개항과 뉴질랜드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새로운 서비스는 2016년 7월부터 주 1회씩 제공되며, 최초 출발항으로부터 목적항에 도착하는 통과기간(transit time)은 총 14일이 소요됨



자료 : www.worldmaritimenews.com

자료: www.ship-technology.com

- 머스크사는 이미 동남아-뉴질랜드 노선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동북아-뉴질랜드 노선을 개설해 동남아와 동북아를 뉴질랜드와 잇는 양대 노선 체제를 구축하게 됨
 - 동남아-뉴질랜드 노선은 말레이시아 탄중 펠레파스, 싱가포르를 뉴질랜드의 타우랑가항과 연결하는 노선임
 - 동남아-뉴질랜드 노선은 말레이시아 탄중 펠레파스(주1회 토요일 출항) 및 싱가포르(주1회 일요일 출항)를 출항하여 뉴질랜드 타우랑가 항에 기항한 뒤 출발항으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소요일은 각각 20일 및 35일임
 - 머스크사는 현재까지 유럽, 동남아, 동북아로부터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화물을 싱가포르에 집중시켜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1차 기항지로 한 '트리플 스타' 서비스를 운영해왔음



- 신설된 동북아-뉴질랜드 노선은 오클랜드 대신 타우랑가항을 종점으로 한 것으로, 타우랑가항은 현재 뉴질랜드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임
 - 연간 화물 처리량은 1천3백만 톤에 이름
 - 타우랑가 항은 웰링턴과 오클랜드 편 국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을 두고 있으며, 동부 연안과 뉴질랜드 기간 철도망에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있어 양호한 입지를 갖추고 있음
 - World Maritime News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동북아-뉴질랜드 노선 개설은 타우랑가 항만측이 핀란드에 8대의 디젤 및 전기형 컨테이너 하역 장비(straddle carrier)를 주문한 것과 동시에 발표됨
- 머스크측의 이번 동북아-뉴질랜드 노선의 신설은 중-뉴질랜드 FTA에 이어 최근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2015년 12월)되는 등 동북아 국가와 뉴질랜드간 교역 증가 및 화물 운송 수요 증가전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됨

자료 : www.worldmaritimenews.com, 2016.6.28

박성준 전문연구원
051-797-4774, sjpark@kmi.re.kr



브렉시트, LNG시장의 물류흐름 변화 야기할 수도

- BMI Research³⁾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가스 시장이 원유 시장보다 브렉시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임
 - 트레이더들은 브렉시트로 인한 통화변동성이 지역 간 LNG 가격 차이를 나게 하며 차익거래 (arbitrage trades)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말함
- LNG시장에서 영국의 통화가치 하락은 중요한 문제임. LNG 현물시장에서 가격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영국의 NBP(National Balancing Point)가 영국 통화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임
 - 영국가스시장 가격을 대표하는 NBP는 북서유럽지역에도 넓게 적용되며 현재는 LNG의 유럽 스팟가격과 장기공급 계약 및 국제선물거래소(Intercontinental Exchange, ICE)의 LNG파생상품에도 활용됨
 - * NBP 이외 현물천연가스시장에서 활용되는 가격지표로는 미국의 헨리 허브(Henry Hub) 가격이 있음
 -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싱가포르 트레이더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LNG 거래시장에서 매매자들이 빠져나갔으며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말함
- 유럽의 LNG가격은 브렉시트 투표 하루 전(6월 23일) \$4.92/mmBtu⁴⁾였으나 투표 결과 발표 이후(6월 30일) 파운드 가치가 하락하면서 \$4.44/mmBtu로 하락하였음
- 동 기간 동안 아시아의 LNG가격은 \$5.30~\$5.40/mmBtu로 유럽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음
 - 그러나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 LNG가 초과공급 된다면 아시아 LNG가격이 하락할 수 있음
-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간 LNG 가격 차이로 인해 차익거래가 실현 된다면 유럽발 아시아 도착 LNG 화물수송이 발생할 수도 있음
 - 현재 아시아지역은 세계 최대의 LNG 소비시장으로 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LNG를 수입하고 있음

자료 : www.lloydslist.com, 2016.7.1

전우현 연구원
051-797-4615, jwh0321@kmi.re.kr

3) BMI Reserach는 신용평가기관인 Fitch ratings의 계열사임

4) mmBtu는 million British thermal units의 약자로 천연가스의 열량단위를 나타냄



브렉시트, 유럽 공급 체인에 영향 미칠 것

- 물류업계 종사자들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됨에 따라 영국은 다른 27개 EU 회원국들과 무역협상 및 법령정비를 거쳐야 하며, 이는 결국 지역 공급 체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함
 - 특히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초래할 영향으로 상품 수요 하락 및 법령정비를 위한 서비스 수요 증가가 언급됨
 - 여기서 언급되는 서비스 수요란 영국이 무역협상 및 법령정비를 거치는데 있어 무역 종사자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의미함
- 또한, 브렉시트라는 결과에 따라 영국의 경제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고, 모든 것이 전환하는 시기가 곧 일어날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결코 영국이 유럽연합 국가 및 미국과의 무역 거래를 중지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함
- 대형 물류기업 DSV의 대표는 이번 영국의 투표 결과가 기회 창출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함
 - 현재 영국에 있는 사람이 다른 유럽 국가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그것은 자국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세금, VAT, 관세 등이 부여되면서 더 복잡한 문제가 됨
 - 하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기업에게는 이 또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함
- 더불어, 전문가들은 영국 기업이 단기적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 이는 브렉시트의 여파로 파운드 가치 및 영국 제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영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임
- 한 전자상거래 쇼핑몰 대표는 이제 유럽 국가들은 영국을 자신들과 같은 국가가 아닌 미국, 중국 또는 일본과 같은 타 국가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물류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은 기업들이 브렉시트로 인해 혼란 속에 빠져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무역 지도(trade map)에 맞게 각 기업만의 유통 채널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자료 : www.logisticsmagazine.com, 2016.6.29.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물류시장동향

EC, 여름 이후 기존 GRI 방식 대체하는 총 운임기준 적용 예상

- EC(European Commission :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선박 운임공표방식(EC Commitment) 이 여름 이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
 - 선사들은 기존의 운임 변경액 공표가 아닌 지정된 부대운임을 포함한 운임총액을 공표해야 함
- EC Commitment는 운임 담합관련 EC경제총국의 조사 결과로 제시되었음
- EC Commitment는 마켓테스트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EC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며, EC는 금년 여름 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www.loydslist.com, 2016.6.29.

김주혜 연구원
051-797-4779, joohye915@kmi.re.kr

구글, 태평양 횡단 해저 광케이블 완공

-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구글은 태평양을 횡단하는 해저 광케이블을 완공함
 - 구글은 미국과 일본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패스터(Fater)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1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 구글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표준케이블 모뎀대비 인터넷 속도가 약 10만 배 빨라질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초당 최대 60테라비트에 이를 것이라고 밝힘



자료 : www.supplychain247.com



- 구글은 본 패스터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급증하는 인터넷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구글은 아시아태평양지역내 스마트폰, 태블릿PC, 클라우드 서비스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송·수신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으나, 본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지역 인터넷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힘

자료 : www.supplychain247.com, 2016.7.1.

고재성 연구원
051-797-4776, jso@kmi.re.kr



제11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11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년 7월 11일(월), 14:00~18: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회의실A(지하 2층)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주요 소개사업

시간	세션	대상 사업	대상 지역
14:20~15:20	제1세션	극동러시아 수산물 물류센터 진출사업	중국, 러시아
		한중 FTA 연계 중국 콜드체인시장 진출방안	
16:00~18:00	제2세션	인도네시아 비통항 및 SEZ 투자 사업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인도 Dighi 항만 개발 및 운영사업	

- 참가신청 : 2016년 7월 10일(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별첨 참가신청서를 이메일(joohye915@kmi.re.kr / ksw@kmi.re.kr)로 송부
- 참가문의 : 김주혜 연구원(051-797-4779, joohye915@kmi.re.kr)
김세원 연구원(051-797-4775, ksw@kmi.re.kr)

※ 본 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참가신청서

- 일시 : 2016년 7월 11일(월), 14:00~18: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회의실A(지하 2층)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회 사 명	
-------	--

참가자 1

성 명		직 위	
부 서 명		이 메 일	
전화(사무실)		전화(핸드폰)	

참가자 2

성 명		직 위	
부 서 명		이 메 일	
전화(사무실)		전화(핸드폰)	

▶ 참고 사항

- 신청인원 : 참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정보를 기재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6.7.10.(일) 18:00까지 선착순 접수
- 접 수 처 : E-mail (joohye915@kmi.re.kr / ksw@kmi.re.kr)
- 문 의 :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김주혜 연구원 Tel.051-797-4779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김세원 연구원 Tel.051-797-4775
- 기 타 : 참가비 무료